

## 진정성 담론의 (불)가능성 연구

-기형도의 시와 그에 대한 독해 양상을 중심으로\*

임지훈 \*\*

### -차 례-

1. 들어가며 - 진정성과 기형도 신화
2. 진정성의 가능성 : 내면과의 대화와 작품성의 관계
3. 진정성의 불가능성 : 진정성의 내적 한계와 우회적 접근
4. 결론 - 진정성의 (불)가능성과 기형도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입(NRF-2021S1A5B5A17052738)

\*\* 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강사

## [국문초록]

본고는 진정성 담론을 중심으로 기형도의 작품에 대한 평가와 해석 양상을 분석한다. 진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기형도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시기에 따른 작품의 평가와 해석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2차적인 목표이다. 본고는 이를 위해 『입 속의 검은 잎』이 출간된 90년대 초반의 기형도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점검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진정성’의 개념적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그 후에는 2010년대에 이루어진 기형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점검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변화 양상을 살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성 담론과 기형도에 대한 해석 및 평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문학에서 사용된 진정성 개념의 용례를 파악하고, 해당 개념이 작품 해석에 끼치는 영향력을 텍스트 해석을 통해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와 비평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진정성의 개념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현재화 가능한 영역을 추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1990년대에 이루어진 기형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살펴 보았다. 1990년대의 해석과 평가는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시적 주체인 ‘나’와 내면의 요소를 강조한다. 이러한 요소는 비관적 현실과 대립되는 바로서의 참된 자아인 ‘나’라는 대상을 향한 영구적인 운동으로 압축되는데, 이는 남진우가 강조하고 있듯 기형도의 특징이자 그가 이해하는 1990년대의 특수성으로 이해된다. 3장에서는 2010년대에 이루어진 기형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살펴 보았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기형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타자와의 조우에 초점을 맞추며, 타자에 대한 지향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1990년대에 대한 평가와 대립된다. 1990년대의 기형도에 대한 평가가 당대의 문학적 헤게모니와 갖는 친연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친연성이 기형도의 시대 내재된 동시대로서의 80년대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와 역사성을 축소시킨다는 점을 비판한다.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기형도에 대한 평가와 해석 속에서 ‘진정성’은 대립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1990년대의 특수성을 산출하는

문제와 문학적 헤게모니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주제어** : 기형도, 진정성, 1990년대, 2010년대, 내면, 자아, 타자, 윤리

## 1. 들어가며 - 진정성과 기형도 신화

진정성(authenticity)은 중세 라틴어(authenticus)에서 유래한 단어로 본래 미학에서 대상의 진위(眞僞) 여부를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현재는 대상의 행동이 얼마만큼 진실된 마음이나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뜻하는 眞情性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문학 연구에서도 진정성이라는 용어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작가나 인물의 의도 혹은 인격이 행동이나 서술을 통해 얼마만큼 진실되고 거짓 없이 표현되고 있는가를 주장할 때 주로 활용된다. 여타의 선행연구가 지적하고 있듯<sup>1)</sup> 문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진정성이란 용어는 허위나 가식과는 구별되는 태도로서 주체가 지닌 삶에 대한 고유한 충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척도로 활용되어왔다. 이는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작품의 특정한 성질을 표현하거나 상찬하기 위한 문학적 수사였을 뿐만 아니라 작품이 지니는 미적 가치, 작품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음을 의미한다.

진정성이 작가나 인물의 진실되고 거짓 없는 표현 양상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라면, 진정성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이후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한국 문학사에서 진정성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대개의 경우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참된(sincere)’ 자아인 것으로 설명된다. 찰스 귀농의 정리를 따르자면 이와 같은 진정성의 개념은 개인의 내면에 참된(sincere) 자아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외부 현실을 개인에게 부과된 제약이자 족쇄로 파악한다. 따라서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돼 존재의 근원과 본질로서 참된 자아와 일치된 삶을 이루는 것이 진정성에 따른 삶의 목적이라 주

1) 한국 문학과 진정성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강동호, 「문학이라는 시물라르크-신경숙의 『외딴방』과 문학적 진정성에 대한 해체적 읽기」, 『상허학보』 제69집, 상허학회, 2023.10;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6.12;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 『상허학보』 제66집, 상허학회, 2022.10; 안지영, 「공감의 윤리와 슬픔의 변증법」, 『한국학연구』 44권,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02; 차미령, 「진정성의 아포리아 - 1990년대 후반 문학비평의 진정성 담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69집, 상허학회, 2023.10.

장한다.<sup>2)</sup>

찰스 귀농의 정의는 진정성의 개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첫째로, 진정성은 개인의 사회적 삶의 양태로서의 외부 현실과 대립되는 공간으로서 개인의 ‘내면’을 전제하며, 두 대립항 가운데 후자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진정성은 외부 현실에 대한 주체의 귀속성보다 자기 내면의 충실성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위의 두 사항을 정리하자면, 진정성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의 지향을 설정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 덧붙여 가라타니 고진이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에서 고찰한 근대문학의 주체 개념 또한 한국 문학 연구에서 활용되는 진정성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저서에서 고진은 근대문학의 주체를 설명하며 이를 “응답 없는 내면과의 집요하고 무한한 대화에 몰두하는 극도로 내향적인 존재”로 정의하며, “‘진정성(authenticity)’을 추구하는 주체”<sup>3)</sup>로 요약한다.<sup>4)</sup> 김홍중은 이를 종합하여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가치의 체계이자 도덕적 이상으로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미덕으로 삼는 태도”<sup>5)</sup>로 진정성의 개념적 의미를 정리한다.<sup>6)</sup>

2) 찰스 귀농, 강혜원 옮김, 『진정성에 대하여』, 동문선, 2004, 80~86쪽 참조.

3) 서지사항 확인 필요. 94쪽 이전. 가라타니 고진, 「내면의 발견」,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 b, 2010, 49~104쪽 참조.

4) 가라타니 고진은 이러한 ‘진정성의 주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논의가 “<진정한 자아>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은 환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아는 실증 불가능한 요소임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극도로 모호하다. 더불어 이와 같은 ‘발견’이 근대에 이루어진 ‘내면’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닌 근대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다.

5)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9쪽.

6) 김홍중은 ‘진정성’이 “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형성되어 소위 386세대의 세대의식의 핵심을 구성했고, 90년대 문학과 문화의 영역에서 더욱 심화되어 중요한 가치로서 부각되다가,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총체적 구조조정의 국면에 진입하면서부터 사회의 주도적 가치로부터 급격하게 퇴조”했다고 분석한다. 그러한 분석에 덧붙여 김홍중은 현대 한국 사회를 ‘포스트-진정성 체제(post-authenticity regime)’에 진입한 것이라 이야기하며, 진정성이 와해된 자리에 새롭게 들어서는 삶의 태도로 신자유주의적 스노비즘과 동물성을 꼽는다. 인용문은 위의 책, 20쪽.

‘진정성’ 개념이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급부상한 것은 1990년대의 일로, 소위 ‘김영현 문학 논쟁’을 통해서인 것으로 간주 된다. 김영현의 소설을 두고 권성우와 정남영 사이에서 오갔던 이 논쟁은 80년대에서 90년대로 이행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기에서 권성우는 “진보적인 지식인의 섬세한 내면이, 일상사에 매개되어, 얼마나 풍부하고 복합적인 풍경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감동적으로 보여”<sup>7)</sup>준다며 김영현의 소설이 지닌 가치를 평가한다. 반면 정남영은 김영현의 소설을 가리켜 “투쟁과 혁명을 한편에 놓았을 때에 다른 한편에 놓이게 되는 어떤 것”으로서의 ‘일상사’를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문제의 본질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예뵈러 가는 것”<sup>8)</sup>이라 비판한다.<sup>9)</sup>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기형도의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변화 또한 서로 다른 가치 체계의 충돌이 문학 작품을 두고 가시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1989년 5월, 시인의 사후 출간된 이 시집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체의 파편화된 고독과 죽음의 이미지, 고뇌로 점철된 내적 갈등”<sup>10)</sup>의 측면이 주목받았으며, 이로 인해 “집단성 내지 저항성을 지향했던 1980년대 시적 흐름에서 1990년대 이후의 흐름을 집약하는 전범”<sup>11)</sup>으로, “80년대 문학의 주류를 차지하였던 리얼

7) 권성우, 「베를린.전노협, 김영현」, 『문학과사회』 봄호, 1990, 263~264쪽.

8) 정남영, 「김영현 소설은 남한 문예운동의 미래인가, 과거인가」, 『노동해방문학』, 1990.6, 143쪽.

9)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권성우와 정남영 사이에서 벌어진 ‘김영현 문학 논쟁’은 소설 자체의 작품성과 가치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른 문학적 헤게모니의 변화가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풀어 설명하자면, 문학의 정당성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음을, 보다 정확하게는 문학을 해석하는 초점이 이동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가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과 실천이라는 헤게모니의 강조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의 범람에 따른 스노비즘과 그에 따른 사회적 도덕의 몰락 속에서 문학의 새로운 정당성을 추출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문학의 시대적 감각이 “90년대 문학의 출발을 조건지웠던 근원적인 파토스는 아무래도 80년대에 대한 청산과 단절의 감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 후대 연구자들의 주된 견해이다. 인용문은 황종연.진정성.김동식.이광호, 「좌담: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19쪽.

10) 김춘식, 「무너짐과 견딤의 시학-기형도 시의 구조분석」, 『현대시』, 1992.6.

11) 안지영, 「공감의 윤리와 슬픔의 변증법」, 『한국학연구』 44권, 인하대학교 한국학

리즘 문학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적인 것’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기표로 작동”<sup>12)</sup>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의 문단활동과 작품 창작 시기가 1980년대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형도의 시세계의 특징으로 “80년대를 경험한 자가 지각할 만한 사회적 압력과 정치적 사건들의 직·간접적 영향”<sup>13)</sup> 속에서 포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형도의 시에는 “국가 폭력과 맞서 싸웠던 민중과 관련한 광주의 기억”, “70년대 전태일로 대표 표상되면서 80년대까지 지속되어 온 노동자 계급의 투쟁”<sup>14)</sup>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러한 기형도의 시를 단순히 1990년대적인 것으로 독해하는 것은 기형도 시의 역사적 맥락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sup>15)</sup>

이러한 해석적 대립 속에서 ‘진정성’은 대립의 중심적인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후에 살펴볼 바와 같이 남진우를 비롯한 여러 평론가 및 연구자에 의해 의미화된 ‘진정성의 화신’이라는 이미지는 기형도 신화와 초기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2010년대를 전

연구소, 2017.02, 312쪽.

12) 같은 글, 307쪽.

13) 송중원, 「기형도 시에 나타난 시대적 징후」, 『인문학연구』 30권,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12, 126쪽.

14) 위의 책, 127쪽.

15) 이 외에도 기형도에 대한 문학적 평가는 실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인다. 짧은 천재 시인이라는 수사적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죽음에 대한 천착과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통해 도저한 부정성을 보여주었다는 세계관에 대한 평가(김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채험」,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독특한 1인칭의 진술과 거리두기를 통해 새로운 화법을 보여주었다는 형식적 면모에 대한 평가(오연경, 「기형도의 사후 주체와 거리두기 전략」, 『한국시학연구』 제58집, 한국시학회, 2019.5), 20세기 한국 문학의 테카당스의 명맥을 잇고 있다는 문예사조적 평가(이재복, 「한국 현대시와 테카당스」, 『비교문화연구』 제12집, 비교문화연구소, 2008.12), 파편적이고 소외되어 있는 주체의 모습을 통해 도시인의 실존을 그리고 있다는 내용적 측면에 대한 평가(송지선,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상도시(bed town)의 로컬리티 연구」, 『국어문학』 제60집, 국어문학회, 2015.11), 기독교적 요소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면모에 대한 평가(정우진, 「기형도 시에 내재한 기독교적 요소와 시적 전개」, 『한국시학연구』 제38호, 한국시학회, 2013.12) 등, 무수한 문학적 평가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기형도의 작품이 단순히 시기적인 문제나 요철의 문제로 상찬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문학적 깊이와 진폭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후하여 등장하기 시작한 기형도의 작품에 대한 재의미화의 과정은 기형도의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1990년대의 문학적 헤게모니로서 ‘진정성’ 담론에 의한 산물이라 비판한다. 본고에서는 기형도의 작품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짚어보며, 그 과정에서 진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작동하는 양식과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진정성 담론이 기형도의 작품 해석에 미친 영향에 있어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는 작업은 한국 문학에 있어 범용적으로 사용되어 온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면밀하게 살핌과 동시에 미처 현재화되지 못한 가능성을 짚어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2. 진정성의 가능성 : 내면과의 대화와 작품성의 관계

한국 문학에 있어 기형도는 하나의 신화로 자리잡고 있다. 그가 신화로 자리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시기적인 문체와 시인의 불분명한 죽음, 유고 시집이라는 특성이 199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집이 출간된 1989년 5월이 국내외적으로 체제의 종식으로 인한 새로운 체제의 구체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이었으며, 시인의 생물학적 죽음이 유발한 ‘요절한 천재 시인’이라는 수사가 맞물리면서 1990년대의 대중적 흥행과 신화화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기형도의 사후 그의 시집에 부처진 주류 평론가의 해석과 맞물리면서 『입속의 검은 잎』은 1980년대와 단절하고 1990년대적인 것이 시작되는 문학적 분수령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기형도 신화에 있어 ‘진정성’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출 때 김현의 시집 해설을 비롯한 초기 분석과 비평들은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박철화, 정과리, 이광호 등의 분석과 비평<sup>16)</sup>이 여기에 해당할 것인

16) 박철화, 「집없는 자의 길찾기 - 혹은 죽음」, 『문학과 사회』 가을호, 1989; 정과리, 「죽음 혹은 순수 텍스트로서의 시」, 『무덤 속의 마젤란』, 문학과 지성사, 1999; 이광호, 「목시와 목시 : 상징적 죽음의 형식」,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술출판사, 1994.

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형도의 시적 세계가 갖는 특징을 죽음 의식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죽음 의식은 죽음에 대한 천착에서부터 현실 세계에서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한 고유한 인식 일체를 가리킨다. 연구나 비평에 따라 기형도의 죽음 의식을 시인의 자전적인 경험에서 원인을 찾거나,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의 일환으로 의미화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개의 연구가 기형도 시의 죽음 의식이 독특한 허무주의적 세계관의 핵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80년대 문학의 주류를 차지하였던 리얼리즘 문학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적인 것’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기표로 작동”<sup>17)</sup>한다는 것이 기형도에 대한 초기 비평의 공통점이다.

여기에 더불어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기형도를 바라볼 때, 1990년대의 기형도에 대한 대중의 열광에 대한 이광호의 분석<sup>18)</sup>, 기형도와 그의 작품이 갖는 의미를 “진정성의 표지”라고 의미화한 남진우의 해석<sup>19)</sup>도 주목을 요한다. 두 편의 글은 기형도와 그의 시 세계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일정 정도 이루어진 이후 쓰인 것으로, 기형도와 그의 텍스트에 대한 초기 해석 및 1990년대에 기형도가 갖는 의미를 소급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두 편의 글은 앞선 글과 함께, 기형도의 시 세계가 갖는 의미를 생물학적 죽음과 분리불가능함을 강조하며, 시인의 ‘요절’이라는 생물학적 계기를 작품의 특징과 연계하여 추출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들에 따르면 기형도의 시가 갖는 형식적 특징들이나 시적 화자의 고유한 태도, 독특하고 개성적인 화법의 문제는 기형도의 시에 내재된 죽음 의식과 더불어, 시인의 실제 죽음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로 파악된다.

먼저 김현의 평가를 살펴보자. 김현의 해설에는 그가 “도저한 부정성”이라 표현했던 시적 화자의 태도와 그로테스크한 표현, 자기비하적 자기 인식과 내면으로의 침잠,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표현과 그에 대한 폐쇄적 묘사, 이러한 특징을 아우르는 1인칭 발화의 문

17) 안지영, *같은 글*, 307쪽.

18) 이광호, 「기형도의 시간, 거리의 시간」, 『정거장에서의 충고』, 문학과지성사, 2009.

19) 남진우, 「숲으로 된 성벽」, 『정거장에서의 충고』, 문학과지성사, 2009.

체 등 현재까지도 기형도에 대한 평가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들이 주된 특징으로 제기된다. 여기에 덧붙여 진정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것은 그가 기형도의 문학적 특징을 “그의 시는 현실적인 것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아름다움, 추함과 대립되는 의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모습에 대한 앎-아름다움이란, 아는 대상다움다라는 뜻이다-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목표로한다”<sup>20)</sup>고 말한 대목이다. 김현에 따르면 자기 내면에 참된 자아를 전제하고, 참된 자아에 다가가기 위한 주체의 노력이 기형도 시의 핵심적 목표이며, 기형도 시의 특징들은 이러한 목표 의식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결과로 파악된다.<sup>21)</sup>

김현의 해설에서 흥미로운 것은 기형도의 시의 핵심을 시적 주체 ‘나’의 문제로 바라보며, 이때의 ‘나’를 원초적으로 분열된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현의 해설에서 시적 주체 ‘나’는 크게 두 개의 층위로 나뉘어 상정된다. 하나는 실제 작품의 화자이자 현실적 자아로서의 ‘나’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아름다움”의 대상, 순수 대상으로서의 ‘나’이다. 이것이 순수 대상인 까닭은 그것이 어떤 실정적 진술이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될 수 없으며, 오직 “아름다움”의 대상이라는 추상적 성질로서만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는 찰스 귀농이 제시한 진정성의 도식에서 진정성을 수행하는 주체와 진정성의 대상으로서의 참된(sincere) 자아의 구도와 동일하다. 김현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는 현실적 자아와 내면의 참된 자아로서의 ‘나’의 관계를 무대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0) 김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150~151쪽.

21) 이러한 김현의 관점은 후대 연구자들에게도 강력한 구심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방승호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김현의 해설을 바탕으로 기형도의 시 세계가 갖는 특징을 자기 인식의 추구로 꼽으며, 이를 중심으로 자기 비하와 우울감, 죽음에 대한 천착 등의 특징적 요소를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기형도의 시에서 자기 비하와 우울감의 양식은 “주체의 심리적 양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이해에 가까워지기 위한 반성적 자아의 삶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우울한 주체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방승호, 「기형도 시에 나타난 자기인식과 진정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8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12.

나에게는 낯은 악기가 하나 있다. 여섯 개의 줄이 모두 끊어져 나는 오래전부터 그 기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때 나의 슬픔과 걱정들을 오선지 위로 데리고 가 부드러운 음자리로 배열해주던’ 알 수 없는 일이 있다. 가끔씩 어둡고 텅 빈 방에 홀로 있을 때 그 기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나는 경악한다. 그러나 나의 감각들은 힘센 기억들을 품고 있다. 기타 소리가 멎으면 더듬더듬 나는 양초를 찾는다. 그렇다. 나에게는 낯은 악기가 하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가끔씩 어둡고 텅 빈 희망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이상한 연주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내 몸의 전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튕겨지는 때도 있다.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는 푸른색이다.

어떤 먼지도 그것의 색깔을 바꾸지 못한다.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 전문.<sup>22)</sup>

위의 시는 현실적 자아인 ‘나’를 화자로 하여 참된 자아로서의 ‘나’를 “낯은 악기”로 대상화해 화자 내면의 심적 경계를 그리고 있다. 현실적 자아인 ‘나’의 경험과 감각 속에서, “낯은 악기”는 “여섯 개의 줄이 모두 끊어져” 악기로서의 체 구실을 할 수 없음에도 홀로 있을 때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한때 나의 슬픔과 걱정들을 오선지 위로 데리고 가 부드러운 음자리로 배열”하거나 “가끔씩 어둡고 텅 빈 방에 홀로 있을 때” 그 홀로됨을 깨뜨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자가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듯 참된 자아로서의 ‘나’인 “낯은 악기”의 성질은 “알 수 없는” 것이며, 동시에 현실적 자아인 ‘나’에게 있어서는 “경악”을 불러온다. 그럼에도 현실적 자아인 ‘나’에게 있어 “낯은 악기”는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나는 가끔씩 어둡고 텅 빈 희망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화자의 특수한 지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현의 해설을 경유하여 기형도의 시를 독해할 때, 김현이 제시하고 있는 “아름다움”의 대상인 참된 자아로서의 ‘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정적인 진술, 혹은 현

22) 기형도, 『입 속의 푸른 잎』, 문학과지성사, 78쪽.

실의 언어를 통해 재현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경악이라는 감각적 형식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진술될 수 있다. 이는 참된 자아로서의 ‘나’가 “낯은 악기”라는 기표가 지니는 물성과 달리 비-실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총체적인 형태로 결코 진술될 수 없으며, 그것을 소유한 자의 인식과 언어를 통해 감각적인 형식으로만 진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렇기에 “낯은 악기”라는 기표로 제시되는 이 순수 대상 ‘나’는 현실적 자아인 ‘나’의 자기 인식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김현은 그것을 가리켜 “자기 존재의 모습”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동일한 문장 내에서 뒤따르는 설명처럼 그것은 “대상다움다”, 즉 자기 인식과 구별되는 바로서 대상에 대한 “앎”의 문제와 연결된다. 위의 분석과 김현의 해설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종합하자면, 대상으로서의 참된 자아 ‘나’는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대상이 아니라 비관적 현실에 대한 부정성을 통해 구성되는 효과로서 실재(The Real)적 성격을 지닌다<sup>23)</sup>. 즉, 대상으로서의 참된 자아인 ‘나’는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 「봄날은 간다」, 「종이달」, 「비가 2」, 「그날」, 「정거장에서의 충고」 등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비관적인 현실로부터 산출되는 효과이다. 기형도의 시에서 나타나는 비관적인 현실 인식이 묘사와 진술의 효과라는 사실을 감안하자면, 이러한 대상으로서의 ‘나’는 효과의 효과, 현상으로부터 산출되는 현상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김현의 해설과 작품의 의미를 종합하자면 기형도의 시의 핵심은 참된 자아라는 실재적 대상에 대한 “앎”과 그것의 추구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참된 자아에 대한 앎의 문제는 완수될 수 없다는 점에

23) 슬라보예 지젝은 라캉을 경유하여 ‘실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실재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견고하고 꿩을 수 없는 중핵인 동시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존재론적 일관성도 갖고 있지 않은 기괴한 순수 실체이기도 하다. (중략) 상징화의 실패의 지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자체의 실정성으로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실재는 오직 그것의 구조적 효과로부터 소급되어 축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실효성은 그것이 주체의 상징적 세계 속에서 산출하는 뒤틀림 속에 있다.”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268~269쪽. “실재는 상징화에 선행하고 저항하는 딱딱한 실체적 중핵을 지칭하는 동시에 상징화 그 자체에 의해 정립되거나 “산출되는” 잔여물을 지칭한다.” 슬라보예 지젝,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도서출판 b, 2007, 71쪽.

서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목적의 대상 자체가 비-실체적이이기에, 그것의 실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지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김현의 해설에 따른 기형도의 작품에 내재한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담론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진정성 담론에서 제기하는 참된 자아로서의 ‘나’에 대한 주체의 운동 역시 완수될 수 없으며 오직 대상을 향한 점근적인 운동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을 따름이다. 문제는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 이러한 점근적 운동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형도에 대한 해석에 있어 그의 생물학적 죽음, 즉 ‘요절’이 해석을 위한 강력한 동인으로 작동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요절’은 유한한 주체의 점근법적 운동을 항구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로, 주체의 유한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동한다. 실제 시집 해설이 시인의 요절 이후에 작성되었기에 생물학적 계기가 강력한 동인으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해설을 위해 제기된 분석틀에서도 ‘요절’은 주체의 진정성, 참된 자아에 대한 앞의 의지를 불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요청되는 결정적인 계기이다.

기형도의 시를 해석함에 있어 그의 요절이 해석의 지표로 작동하는 것은 김현뿐만이 아니다. 아래 이광호가 쓴 추도사 성격의 평론에서도, 시인의 죽음은 작품 해석의 큰 참조점으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기형도라는 신화가 있다. 기형도라는 이름은 8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뜨거운 신화의 하나이다. 신화는 끊임없이 다시 씌어진다. 기형도가 지속적으로 다시 읽히는 것은 그 신화의 부정할 수 없는 생명력을 말해 준다. 그 신화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 첫 시집이 나오기 전에 도심의 심야 극장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시인의 개인적 신화가 하나라면, 두 번째는 그의 개인적 신화를 문화적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문학 대중들의 지속적인 열광이다.<sup>24)</sup>

여기에서 이광호가 표현하는 바를 정리하자면, 기형도는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거듭 현재 속으로 소환되어 다시 씌어지는 텍스트

24) 이광호, 「기형도의 시간, 거리의 시간」, 『정거장에서의 충고』, 문학과지성사, 2009, 83쪽.

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다시 씌어”질 수 있는 까닭은, 기형도라는 텍스트가 가진 “부정할 수 없는 생명력”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생명력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라는 두 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예컨대 ‘요절’이라는 특수한 죽음의 형태와 그에 대한 독서 대중 일반의 반응이 기형도라는 텍스트에 일종의 불멸성을 부여하는 것이다.<sup>25)</sup> 이는 앞서 제기된 김현의 분석에서 시인의 진정성, 참된 자아를 향한 점근적 운동을 불멸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동인으로서의 ‘요절’이 차지하는 위상과 유사하다.

이처럼 기형도와 그의 작품을 둘러싼 해석에서는 ‘요절’이라는 특수한 죽음의 형태를 매개로 하는 신화적 속성이 개입되어 있다. 김현의 해설에서부터 시적 주체의 속성은 ‘요절’이라는 생물학적 계기를 통해 방점이 찍히며, 이광호가 분석한 바와 같이 대중들에게 있어서의 기형도의 의미 또한 젊은 시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개인적 신화를 통해 지속된다. 그러한 견지에서 바라보자면 ‘요절’은 시인의 삶과 문학 작품을 포괄하는 기형도라는 텍스트 자체를 완성시켜주는 계기이며, 그 모든 개별적인 의미를 한 데 묶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독서 대중에게서만이 아니라 기형도의 작품에 대한 독해 양상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그의 생물학적 죽음을 작품을 읽어내는 주요한 누빔점으로 바라보는 사례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들에서 기형도의 시는 비판적 현실 속에 놓인 개인의 좌절과 반성, 그리고 성찰의 측면이 강조된다. 남진우가 쓴 아래의 평은 그러한 경향들의 대표적인 참조점이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형도의 시는 우리 세계에서 모습을 감춰버린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城)을 찾아가는 언어의 순레이자 그 성을 은폐하고 그 성을 향해 가고자 하는 노력을 좌절시키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한계지점으로서의 끝없는 접근, 이것이 기형도의 시의 미덕이자 기형도라

25) 이 외에도 기형도라는 텍스트가 지닌 신화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정과리, 「죽음 옆의 삶, 삶 안의 죽음 - 『기형도 전집』에 부쳐」, 『문학과 사회』 여름호, 1999. 이해령, 「기형도라는 페르소나」, 『상허학보』 56집, 상허학회, 2019.

는 인간의 진정성의 표지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그의 내적 명령에 충실했고 그림으로써 1990년대 시의 첫 관문을 열고 나간 시인이 되었다.<sup>26)</sup>

이 글에서 기형도의 시가 갖는 특수성은 “노력을 좌절시키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의식과 “어떤 한계지점으로의 끝없는 접근”으로 요약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관적인 현실에 대한 대항 의식으로서 내면과의 대화를 끝없이 지속한 것이며, 앞선 논의를 참조하자면 비관적 현실과 대립되는 바로서의 참된 자아인 ‘나’라는 대상을 향한 영구적인 운동이 바로 기형도라는 텍스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남진우는 이러한 기형도의 특징을 곧 그의 “진정성의 표지”라고 정의하며, 이것이 바로 기형도가 “1990년대 시의 첫 관문을 열고 나간 시인”인 이유라 설명한다. 이를 역으로 설명하자면 그에게 있어 1990년대는 집단과 저항, 실천과 참여가 강조되던 1980년대와 달리, 비관적인 현실에 대해 개인의 성찰, 내면과의 대화가 강조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 속에서 기형도는 다시금 참된 자아로서의 ‘나’, 실제적 성격을 지닌 대상을 향한 끊임의 추구를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특수한 시인으로 자리매김한다.

### 3. 진정성의 불가능성 : 진정성의 내적 한계와 우회적 접근

김현, 이광호, 남진우라는 세 개의 텍스트를 경유하여 바라볼 때, 기형도와 그의 작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인 ‘나’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때의 ‘나’는 현실적 자아와 대상으로서의 참된 자아인 ‘나’로 분열되어 있으며, 그의 작품은 현실적 자아가 대상으로서의 ‘나’에 대한 끊임을 추구하는 점진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형도의 작품에서 ‘나’라는 시적 주체가 강조되며, 비관적인 현실로부터 추동되는 여러 감정과 고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나, 이러한 묘사와 대비적으로 그의 심적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운동성을 그리고 있는 모습, 잠언투로 진술되는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깨달음 등을 고려하자면, 이와 같은 분석은 타당

26) 남진우, 『숲으로 된 성벽』, 『정거장에서의 충고』, 문학과지성사, 2009, 341쪽.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김현의 해설에서 참된 자아의 ‘나’가 갖는 대상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담론적 구도 속에는 지울 수 없는 내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참된 자아, 대상으로서의 ‘나’가 비-실체적인 대상으로서 비관적인 현실에 대한 효과로서 만들어진 현상의 현상, 비본질적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시적 주체의 문제가 대상에 대한 앎의 추구라고 전제할 때, 이와 같은 비본질적 대상에 대한 앎은 그 비-실체성으로 인해 현실의 언어를 통해 명징하게 설명될 수도 없으며, 그러한 운동 역시 완수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가 인간의 유한성과 마주할 때, 주체의 운동의 대상으로서의 참된 자아인 ‘나’에 대한 운동은 변질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기형도에 대한 초기의 해석과 평가에서 그의 죽음이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죽음은 주체의 생물학적 시간을 정지 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대상을 향한 운동을 상징적 의미에서 항구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sup>27)</sup>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기형도와 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담론이 소유한 근원적인 내적 한계라 할 수 있다. 배하은은 1990년대의 진정성 담론에 대해 “시대 변화에 따라 1980년대 문학의 테제인 ‘실천’이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의 대립항이었던 ‘반성’이라는 테제가 한때 ‘실천’이 담당했던 체제에

27) ‘요절’을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적 계기로 바라보는 관점은 문학상에 있어 크게 낯선 것은 아니다. 김윤식에 따르면 “죽음의 형태가 그의 현세의 삶의 깊이이나 두께에서 판별되고 평가된다는 사상, 곧 저마다의 고유한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상”이 한국 문학사에서 하나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요절이란’, “그 형태의 의미가 날카롭게 드러나는” “짧은이의 죽음”, 즉 “낯선 죽음(der fremde Tod)”이라는 특수한 의미론적 계기로, “짧은 사람들은 그들이 못다한 생전의 삶에 대응되어 그들의 죽음의 형태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 사람들이 운명의 허울을 뒤집어 씌우는 방식에 맞든 적든 관련되고 있”다는 김윤식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산 자에 의해 사후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기형도가 1990년대를 선취했다는 평가는 작품 자체에 내재된 시적 특징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요절’이라는 특수한 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후적인 의미화 작업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용문은 김윤식, 『네 가지 죽음의 형태』, 『80년대 우리 문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55쪽.

대한 저항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되었다”고 분석하며, “그 ‘반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사회라는 공적 영역이 아닌, 개인의 내면”<sup>28)</sup>이라고 주장한다. 즉, “민주화운동이라는 현실참여의 동력을 잃게 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치·사회 현실에서의 ‘양가주망’ 대신 주체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반성과 성찰의 행위”<sup>29)</sup>가 문학 분석에 있어 중점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와 같은 담론이 문학 담론의 중점으로 떠오른 것은 “문학장에서의 헤게모니를 쟁취하고자 했던 새로운 연대의 문학 비평 담론에 의해 1980년대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주변화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급박하게 구성”<sup>30)</sup>된 것이라 평가한다.

이 시기에 대해 안지영은 김수이의 노동시에 대한 연구를 경유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990년대에 이르러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탈근대, 탈식민, 탈민족 등 이른바 ‘포스트(post)’ 담론이 등장하게 된다. “노동시를 독재정권의 종말과 함께 시효 만료된 ‘지나간 역사’의 문학적 대응물로 정리하고, 이념을 위해 미학의 희생이 용인되기도 했던 예외적 시대의 산물로 과거화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sup>31)</sup>이다.”<sup>32)</sup> 여기에 덧붙여, 안지영은 “이러한 이행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러한 와중에 기형도의 문학사적 위상 역시 기묘한 방식으로 자리매김”<sup>33)</sup>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안지영의 평가와 주장은 기형도에 대한 1990년대의 해석과 평가가 당대의 주류 소설가들에 대한 평가(신경숙, 윤대녕, 은희경 등)와 성찰과 반성, 내면과 참된 자아, 그에 따른 진정성의 여부 등의 공통분모를 갖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안지영은 김윤식의 평가<sup>34)</sup>를 언급하며, 1990년대 문학의

28)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 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6.12, 550쪽.

29) 같은 글, 559쪽.

30) 같은 글, 566쪽.

31) 김수이, 「‘민주화’의 역설과 노동시의 새로운 양상 - 민주화 이후 시대의 노동시와 한국 민주주의」, 『민족문화 연구』 58집, 2013, 106쪽.

32) 안지영, 같은 글, 309쪽.

33) 같은 글, 309쪽.

편향성이 비단 소설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 지적하며, 기형도의 시를 “‘나’의 내면을 발견하는 데 몰두하는 진정성 담론과는 달리 ‘타자’와의 대면을 통해 진정성 담론에서 논의되는 ‘자아’와는 구분되는 ‘개인’을 출현시킨다”는 전제에 입각해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시적 주체인 ‘나’가 아니라 동시에 타자와의 조우하는 순간으로서의 ‘마주침(encounter)’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와 같은 ‘마주침’은 타자지향적 철학에서 제시되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기형도 시에서의 특징적 순간들, 예컨대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나 「안개」 등의 시편과도 관계되는 핵심적 키워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회고 거대한 서류 몽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좁고 큰 방에서 서기書記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할 만한 지나침」, 전문<sup>35)</sup>

위의 시는 우연히 지나친 장소에서 “유리창 너머”로 목격한 “한 사

34) 김윤식, 『작가와와의 대화』, 문학동네, 1996, 137~139쪽.

35) 기형도, 같은 책, 49쪽.

내”에 대한 이야기를 시적 화자인 ‘나’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눈이 퍼붓는 캄캄한 거리에서 화자는 도시의 건물들이 눈에 덮여가는 풍경을 “희고 거대한 서류 몽치로 변해갔다”고 표현한다. 도시의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묘사는 눈앞에 비친 풍경을 다른 사물로 비유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공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적 정황 속에서 화자는 관공서의 희미한 불빛을 포착하고, “유리창 너머 한 사내”를 발견한다. 그는 혼자서 울고 있으며, 그런 그를 바라보는 나는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의 까닭은 화자가 울고있는 타자를 향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그렇기에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다는 무능으로 인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화자는 과거의 그 경험을 시의 제목에서 알려주듯 「기억할 만한 지나침」으로 감각하고 있다. 화자는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 그때의 “그 사내”와 유사한 환경에 놓여 그를 떠올리곤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다. 이처럼 ‘나’가 “그 사내”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방식은 자신의 무능을 환기시키는 것인데, 이때의 무능은 시적 주체인 ‘나’가 가진 인격, 타자를 향한 관심과 태도를 함축한다. 그렇기에 그는 사내의 울음을 정지시킬 수도 없으면서, 동시에 그 자리를 떠나는 선택도 하지 못한 것이다. 행동의 미결정과 유보를 통해 나타나는 이와 같은 태도는 그의 시에서 다른 사물, 특히 타자를 바라볼 때 자주 나타난다. 앞선 논의에서 이러한 화자의 태도가 자신의 내면으로의 침잠과 반성적인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보다 확장하여 그러한 미결정성과 유보 자체가 타자를 향한 주체의 특수한 인격으로 의미화된다.

「기억할 만한 지나침」에서 나타나는 ‘나’의 타자지향적인 특수한 인격적 요소에 대해 안지영은 “대상에 대한 연민과 애정과 존중을 잃지 않는 개별자의 위엄”<sup>36)</sup>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기형도의 시적 특수성을 “도시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끊임 없이 예기치 않은 타자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부터 촉발

36) 같은 글, 331쪽.

되는, 불확실한 타자와의 대면 가능성을 통해 윤리적 주체의 형상을 재현하는 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때의 형상이 다른 동시대 시인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타자를 향한 시적 주체의 지향성이 ‘개인’의 출현과 결부된다는 점에 있다. 즉, 기형도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윤리적 주체는 타자와의 완전한 결합 혹은 특수한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목적과 행위가 아니라, 점에서 신동엽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의 저항시나 박노해로 대표되는 1980년대의 노동시와도 전혀 다른 층위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적 주체는 기형도가 「비가2-붉은 달」에서 언급한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의 구체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기형도의 시집이 출간된 1989년으로부터 90년대에 이루어진 해석과 평가는 배하은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당대의 문학적 헤게모니와 친연성을 지닌 것이었으며, 이러한 헤게모니 속에서 기형도의 문학 세계는 ‘나’의 내면 의식, 참된 자아를 향한 반성과 성찰이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안지영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듯, 기형도의 시에는 ‘타자’의 존재 또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sup>37)</sup> 때로는 「기억할 만한 지나침」에서와 같이 유리창을 통해 격리된 상태로 조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라는 이름이나 ‘김’과 같은 명칭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기억 속에서 되새김질 되기도 하는 타자의 모습은 기형도의 시적 주체로 하여금 사유와 고뇌를, 그로부터 촉발되는 윤리적 가능성을 예감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up>38)</sup>

37) 김수이, 「기형도 시에서 ‘살아 있지 않음’이 갖는 의미」, 『한국언어문화』 72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20.08; 송종원, 「기형도 시에 나타난 시대적 징후」, 『인문학연구』 제30집,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12; 오주리, 「기형도 시의 ‘자기혐오’에 대한 존재론적 연구 : 레비나스의 존재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제24권 3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9.09, 홍용희, 「타자의 윤리학과 주체성의 지평 : 기형도론」, 『한국시학연구』 제41호, 한국시학회, 2014.12 등. 관련된 연구로는 안지영 외에도 홍용희, 오주리, 송종원, 김수이.

38) 기형도의 작품 속에서 ‘기억’의 문제는 타자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위에 인용한 「기억할 만한 마주침」 외에도, 「가수는 입을 다무네」, 「포도밭 묘지」 연작, 「그 집 앞」, 「집시의 시집」, 「나리 나리 개나리」, 「종이달」, 「엄마 생각」, 「삼촌의 죽음 - 겨울 판화4」 연작 속 죽은 삼촌의 기억 등, ‘기억’이라는 기표가 직접적인 시어로 제시되는 작품 속에서 ‘기억’은 많은 경우 타자와 관련된다. 이러한 시편들은 「엄마 생각」이나 「나리 나리 개나리」, 「삼촌의 죽음 - 겨울 판화4」에서와 같이 유년 시절의 가족에 대한 감정이나 상실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통

이와 같은 2010년대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자면, 1990년대에 이루어진 기형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주체의 내면과 참된 자아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에 내재된 타자의 문제를 축소 시킨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더불어 이러한 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해석적 경향이 기형도 시에 내재된 동시대로서의 80년대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와 역사성을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가령 송중원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1990년대의 문학적 헤게모니의 출현을 1980년대와 단절하기 위해 1990년대를 특권화하고 하는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이 기형도의 작품에 내재된 역사성, 1980년대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와 열망을 축소평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기형도의 시에 드러난 죽음의 이미지가 80년대의 국가 폭력적 사건을 애도하고 있다는 사실감을 희석시키고, 또한 그가 찾았던 행복의 공간이 80년대적 열망과 닿아있다는 면을 덜 주목하게 만든다. 90년대의 문화적 팽창과 자유주의적 분위기로써 80년대를 문화를 억압적으로 평가하고 80년대와 90년대를 단절된 양상으로 해석하는 작업은 문학사적 평가에서 심심하지 않게 발견되는 편이다.<sup>39)</sup>

위의 분석에서 송중원은 90년대 초에 이뤄진 80년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90년대의 문학적 특수성을 산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기형도의 시를 “탈이념적 성향의 비관주의 내지 탈정치적 성향의 허무주의로 분석하는 경향”<sup>40)</sup>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이러한 시도가 기형도의 시에서 나타나는 ‘실

---

증으로 예각화 되어 특수한 계열성을 형성하기도 하며, 순간적인 타자와의 조우로부터 현실에 대한 특수한 사유를 촉발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기형도의 시에서 ‘기억’이라는 시어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그의 시에서 ‘타자’의 흔적과 위상이 지울 수 없이 중요하게 남아있다는 사실로, 기형도의 시가 타자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기형도의 시에서 나타나는 ‘기억’과 타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를 통해 별도의 지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39) 송중원, 같은 글, 125쪽.

40) 같은 글, 126쪽.

존'과 '죽음'의 문제를 1980년대의 시대적 정황을 삭제하고 비역사적인 '나'의 주체성의 문제로 환원시킨다고 비판한다. 그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기형도의 생애가 1960년에서 1989년의 기간이며 그의 문단 활동이 1985년에서 1989년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면, 시인의 작품에 1980년대의 사회적 압력과 정치적 사건들이 직·간접적으로 녹아있으리라는 해석은 타당성을 지닌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검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겨울엔  
방죽 위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을 지난 삼륜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안개가 걷히고 정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 총신을 겨눈다. 상처 입은 몇몇 사내들은  
협약한 옥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고장을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읊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안개」, 부분<sup>41)</sup>

위의 시는 기형도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안개」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안개」는 도시 공간의 구조적 모순을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구조의 문제로 발생한 불행을 개인의 불행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압력과 그것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전락하여 쉽게 휘발되고 망각되는 사회의 모습이다. 이와

41) 기형도, 같은 책, 11쪽.

같은 작품의 존재는 기형도의 시가 단순한 도시 환멸의 정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개인의 모습과 고통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타자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이와 같은 시적 이미지는 기형도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1980년대를 이해한 바로서, 「입 속의 검은 잎」과 같은 작품과 함께 당대의 구조적 폭력에 노출된 개인을 조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자면, 기형도는 1990년대에 이뤄진 해석 및 평가에서와 달리, 내면과 참된 자아를 향한 삶의 문제에만 천착하는 허무주의적 시인인 것이 아니라 당대와 호흡하며 그 속에 놓인 “위대한 혼자”인 개인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타자지향적 면모 또한 갖추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송종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기형도의 시가 가진 “80년대적 열망”<sup>42)</sup>으로, 그의 문학 세계가 갖는 지향이 단순히 ‘나’라는 1인의 문제가 아닌 현실에 대한 적극적 비판과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모색 또한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결론 - 진정성의 (불)가능성과 기형도

본고에서는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형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990년대에 이루어진 기형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시적 주체인 ‘나’와 내면의 요소를 강조한다. 이러한 요소는 비판적 현실과 대립되는 바로서의 참된 자아인 ‘나’라는 대상을 향한 영구적인 운동으로 압축되는데, 이는 남진우가 강조하고 있듯 기형도의 특징이자 그가 이해하는 1990년대의 특수성으로 이해된다. 반면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10년대에 이루어진 기형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타자와의 조우에 초점을 맞추며, 타자에 대한 지향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 시기에는 1990년대의 기형도에 대한 평가가 당대의 문학적 체계모니와 갖는 친연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친연성이 기형도의

---

42) 같은 글, 125쪽.

시대 내재된 동시대로서의 80년대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와 역사성을 축소시킨다는 점을 비판한다.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기형도에 대한 평가와 해석 속에서 ‘진정성’은 대립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1990년대의 특수성을 산출하는 문제와 문학적 체계모니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그것은 1990년대의 해석과 평가에 대한 비판적 접근으로 제기된 2010년대의 연구가 근본적인 의미에서 구분될 수 있는가라는 지점이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1990년대의 기형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진정성 담론이 제기하는 ‘나’와 ‘참된 자아’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식 속에서 현실적 자아인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참된 자아로서의 ‘나’는 단순한 자기 인식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실재적 성격을 지닌 비-실체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나’의 목적은 참된 자아인 ‘나’에 대한 앎을 얻는 것, 더 나아가 완전한 일치와 합일을 이뤄내는 것인데 이는 남진우의 언급에서와 같이 “한계지점으로서의 끝없는 접근”만이 가능할 뿐, 현실 속에서는 결코 완수될 수 없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도식적으로 풀어내자면 1990년대의 담론이 설정하고 있는 기형도의 특수성으로서의 진정성이란, 비판적 현실 이해와 주체의 내적 공간 사이의 불일치, 이로부터 가능해지는 현실 너머의 이상적 지점의 산출, 그것을 향한 영구적 운동이라는 3단계로 정리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3단계의 구도는 이를 비판하는 2010년대의 해석과 평가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된다. 비록 이와 같은 운동이 효과로서 역사성을, 애도와 타자의 문제를 희석시킨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겠으나, 기형도의 시가 그러한 성격으로부터 “80년대적 열망” 혹은 특수한 시대적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열망 또한 현실화된 적 없는 비역사적인 것으로서, 비판적인 현실 이해로부터 산출된 이상적 지점을 향한 운동은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2010년대에 이루어진 해석과 평가는 1990년대에 이뤄진 해석과 평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하고는 있으나, 이는 이론의 내적 한계를 우회

함으로써 발생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을 통해 2010년대에 이뤄진 기형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점검하자면, 이는 기형도의 시에서 언어화되지 못한 가능성으로서의 역사성과 타자에 대한 애도의 문제를 현재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접근이 진정성 담론의 무용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대의 평가와 해석은 진정성 담론과 유사한 도식적 구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평가와 해석의 초점을 ‘나’에서 ‘타자’로 변경함으로써 의미의 장을 확장시켰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조금 더 비판적으로 접근해보자면, 2010년대에 이뤄진 평가와 해석은 비판적인 현실 이해로부터 산출되는 이상적 지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된 자아(혹은 자기 존재의 모습에 대한 앎)로서의 ‘나’에서 타자 지향적 삶의 태도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sup>43)</sup> 이러한 구도 속에서 기형도의 문학이 갖는 지향성은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한 비역사적인 것으로 남아있으며, 기형도는 실제적인 목표를 향한 운동을 요절이라는 특수한 생물학적 계기로 인해 영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젊은 시인으로 남겨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1990년대에 이뤄진 기형도에 대한 평가가 진정성 담론과 결부되어 과도하게 내면에 천착한 시인으로 해석된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고의 소박한 결론이다. 그러한 평가가 앞선 연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기형도의 시에 내재된 역사성과 타자에 대한 지향성을 파악하는 것에 장애물로 작동한 것은 타당하지만, 장애물로 인식되는 지점을 완전히 거부하고 기형도의 역사성과 타자 지향성만을 의미로 언어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형도에서 역사성과 타자 지향성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시를 ‘1990년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최초의 독해로부터 그 내속적인 결함과 모순을 경험한 결과이다.<sup>44)</sup>

43) 더불어 2010년대의 문학적 전반의 헤게모니가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과 사회적 참사로 인해 발생한 타자와 공동체에 대한 정치성 담론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면, 이러한 분석 역시 문학적 헤게모니와의 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2010년대 문학계의 헤게모니와 기형도의 해석 사이에 존재하는 친연성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므로, 차후 연구를 통해 서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기형도의 시에서 두 해석적 경향이 각기 다른 비역사적 순간으로서 현실 너머에 이상적 지점을 산출하며, 기형도의 작품 세계를 그에 대한 접근적 운동이라 파악한다면, 기형도의 시는 “한계지점으로의 끝없는 접근”이라는 남진우의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평가이겠지만, 기형도의 작품 세계가 갖는 의미의 자장을 이와 같이 확정 짓는 것은 보다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기형도의 시는, 그리고 기형도의 작품 세계가 갖는 궁극적인 의미란 칸트적 의미에서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예지적 차원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해석적 경향 속에서 각기 다른 이상적 지점이 서술 주체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묘사라는 효과로부터 산출된 효과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위의 두 해석적 경향이 내놓고 있는 기형도의 지향이란 서술 효과에 의해 발생한 효과로써 현상의 현상,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차적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 초월적 대상이 산출되는 공식과 동일하다. 초월적 대상으로서의 이상적 지점은 우리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판적인 현실 이해로부터 산출되는 이차적인 대상이다. 즉, 기형도라는 텍스트에 대한 궁극적인 지향으로서 현재까지 논의된 바는 기형도라는 텍스트가 만들어낸 효과가 만들어낸 효과일 뿐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특정한 관점과 체계모니

- 
- 44) 지젝은 헤겔의 “정신은 빠다”라는 명제를 설명하며, 우리가 사변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을 잘못된 선택을, 즉 대상에 대한 소박한 독해를 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헤겔의 요점은 “소박한” 독해(골상학이 스스로를 파악하는 방식. 정신은 이 불활성 대상, 두개골이다. 정신의 특징들은 두개골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부위들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를 거부하고 사변적 의미(정신은 가장 불활성적인 객체성을 포함해서 현실성 전체를 포용하고 매개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만 고려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사변적 의미는 우리가 “소박한” 독해를 유보 없이 따를 때에만, 그리하여 그것의 내속적 무의미를, 그것의 터무니없는 자기모순을 경험할 때에만 출현한다.” 이와 같은 지젝의 헤겔의 명제에 대한 이해를 참조하자면, 2010년대에 기형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1990년대에 이뤄진 해석과 평가를 유보 없이 이해한 결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 결론은 1990년대에 대한 평가의 거부가 아니라 두 해석을 변증법적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용문은 슬라보예 지젝,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도서출판 b, 2007, 69쪽, 각주 49번.

에 입각해 만들어진 해석이라는 결과물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기형도의 시어 가운데 “희망”은 다소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다. “희망”은 「길 위에서 증얼거리다」, 「정거장에서의 충고」, 「질투는 나의 힘」, 「그날」, 「10월」, 「포도밭 묘지 1」, 「식목제植木祭」,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 「오래된 서적」, 「오후 4시의 희망」 등의 작품에서 시어로 활용되며, 그의 산문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단어이다. 비록 「질투는 나의 힘」에서는 “내 희망의 내용을 질투뿐이었구나”라고 “희망”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으나,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나 「오래된 서적」 등의 시에서는 “텅 빈”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그 의미를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해석적 관점이 현실에 대한 이해로부터 이상적인 지점을 산출하고 있음을 상기하자면, 이처럼 “텅 빈”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제시되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비판적 이해를 담지하고 있는 시어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식목제植木祭」에서의 “희망을 포기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리”와 같은 의지의 표현이나 같은 시의 “희망도 절망도 같은 줄기가 띄우는 작은 이파리일 뿐”이라는 표현을 상기하자면, 이러한 의미화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은 아닐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sup>45)</sup>

「그날」에서 기형도는 희망이라는 시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마침내 희망과 걸음이 동시에 떨어진다.” 비록 이 시는 주된 대상인 “김”이 처한 시적 정황으로 말미암아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나, 하나의 문장 속에서 “희망”과 “걸음”이 접속 조사 ‘과’로 동등하게 이어져있다는 사실은, 시적 주체가 생각하는 “희망”의 의미가 주체의 운동과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기형도의 시에서 나타나는 비판적 인식과 감정 묘사가 주로 현실에 대한

45) 하지만 “희망”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연구는 기형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죽음 의식, 타자지향적 윤리, 도시성을 비롯한 주요 연구에 비해 찾아보기 어렵다. 강동호, 김행숙 등의 연구가 “희망”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본고의 결론에서 제시한 바와는 다소 결이 다르며, 해당 시어가 갖는 이질성을 고려할 때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언급된 논의로는 강동호, 『희망이라는 이름의 율리 -기형도의 90년대』, 『사이間SAI』 26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05; 김행숙, 「기형도가 희망을 말하는 법」, 『한국문학연구』 51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08 참조.

반응으로부터 촉발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자면, 「식목제植木祭」라는 시에서 “희망도 절망도 같은 줄기가 튀는 작은 이파리일 뿐”이라 서술된 부분은 “희망”이 현실에 대한 “절망”과는 구분되는 반응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자면, 기형도의 작품 세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이상적 지점은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비-실체적인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형도의 현실 안에 내재된 것으로 셈해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기형도는 과연 현실 너머의 이상이라는 한계지점으로의 끝없는 접근을 시도한 시인인 것일까. 아니면 현실 속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능성을 찾아 끝없이 거리를 배회한 시인이었을까.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Abstract]

## A Study on the (im)Possibility of Authenticity Discourse

Lim, Jeegoon(Korea Aerospace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Ki Hyung-do's works through the discourse of authenticity. The primary objective is to identify the meaning of Guihye-do's work centered on the concept of authenticity, and the secondary objective is to identify the changes in the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Guihye-do's work over time. To this end, this paper will examine the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입 The Black in 인』이 in the early 90s, when it was published, and analyze the conceptual meaning of 'authenticity' as used here. It will then examine the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the deformity maps in the 2010s and compare them to see how they have changed. In doing so, I will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ourse of authenticity and the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the deformi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identifies the uses of the concept of authenticity in Korean literature, and the influence of this concept on the interpretation of works is approached through textual analysis. Furthermore,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extracts areas that can be currentized by approaching the concept of authenticity, which is widely used in the study and criticism of Korean literatur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Chapter 2 examines the interpretations and evaluations of Kihyungdo in the 1990s. The interpretations and evaluations of

the 1990s emphasize the “I” as the poetic subject and the inner elements that appear in his work. These elements are compressed into a permanent movement towards the object of ‘I’, the true self, which is opposed to the pessimistic reality, which, as Nam emphasizes, is a characteristic of Gihyungdo and a particularity of the 1990s as he understands it. Chapter 3 examines the interpretations and evaluations of Guhyungdo in the 2010s. The interpretations and evaluations of Kihyung-do in this period contrast with those of the 1990s in that they focus on the encounter with the Other in his work and are oriented toward the Other. It points out the affinity of 1990s assessments of Kihyung-do with the literary hegemony of the time, and criticizes that this affinity reduces Kihyung-do’s own understanding and historicity of the 80s as a contemporaneity inherent in his time. ‘Authenticity’ is at the center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different evaluations and interpretations of Györgyi’s work, which in turn is linked to the question of literary hegemony and the produc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1990s.

**Key words** : Gi Hyeong-do, Authenticity, 1990s, 2010s, inner, ego, other, ethics.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기형도, 『사랑을 읽고 나는 쓰네』, 솔출판사, 1994.  
 박해현·성석제·이광호 등, 『정거장에서의 충고』, 문학과지성사, 2009.

### ■ 단행본

- 김윤식, 『80년대 우리 문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55면.  
 김윤식, 『작가와와의 대화』, 문학동네, 1996, 137~139면.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9면.  
 정과리, 『무덤 속의 마젤란』, 문학과 지성사, 1999.  
 황종연 외 11명,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19면.

- 가라타니 고진, 「내면의 발견」,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 b, 2010, 49~104면.  
 슬라보예 지젝,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도서출판 b, 2007, 69~71면.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268~269면.  
 찰스 귀농, 강혜원 옮김, 『진정성에 대하여』, 동문선, 2004, 80~86면.

### ■ 논문 및 기타 자료

- 강동호, 「문학이라는 시플라크르 - 신경숙의 『외딴방』 과 문학적 진정성에 대한 해체적 읽기」, 『상허학보』 제69집, 상허학회, 2023.10.  
 강동호, 「희망이라는 이름의 원리 -기형도의 90년대」, 『사이間SAI』 26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05.  
 김수이, 「『민주화』의 역설과 노동시의 새로운 양상 - 민주화 이후 시대의 노동시와 한국 민주주의」, 『민족문화 연구』 58집, 2013.  
 김수이, 「기형도 시에서 ‘살아 있지 않음’이 갖는 의미」, 『한국언어문화』 72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20.08.  
 김행숙, 「기형도가 희망을 말하는 법」, 『한국문학연구』 51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08.  
 방승호, 「기형도 시에 나타난 자기인식과 진정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12.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 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6.12.

- 배하은,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 『상허학보』 제66집, 상허학회, 2022.10.
- 송지선,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상도시(bed town)의 로컬리티 연구」, 『국어문학』 제60집, 국어문학회, 2015.11.
- 송종원, 「기형도 시에 나타난 시대적 징후」, 『인문학연구』 30권,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12.
- 안지영, 「공감의 윤리와 슬픔의 변증법」, 『한국학연구』 44권,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02.
- 오연경, 「기형도의 사후 주체와 거리두기 전략」, 『한국시학연구』 제58집, 한국시학회, 2019.5.
- 오주리, 「기형도 시의 ‘자기혐오’에 대한 존재론적 연구 : 레비나스의 존재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제24권 3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9.09.
- 이재복, 「한국 현대시와 데카당스」, 『비교문화연구』 제12집, 비교문화연구소, 2008.12.
- 이혜령, 「기형도라는 페르소나」, 『상허학보』 56집, 상허학회, 2019.
- 정우진, 「기형도 시에 내재한 기독교적 요소와 시적 전개」, 『한국시학연구』 제38호, 한국시학회, 2013.12.
- 차미령, 「진정성의 아포리아 - 1990년대 후반 문학비평의 진정성 담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69집, 상허학회, 2023.10.
- 홍용희, 「타자의 윤리학과 주체성의 지평 : 기형도 론」, 『한국시학연구』 제41호, 한국시학회, 2014.12.
- 
- 권성우, 「베를린.전노협, 김영현」, 『문학과사회』 봄호, 1990.
- 김춘식, 「무너짐과 견딤의 시학-기형도 시의 구조분석」, 『현대시』, 1992.6.
- 박철화, 「집없는 자의 길찾기 - 혹은 죽음」, 『문학과 사회』 가을호, 1989.
- 정과리, 「죽음 옆의 삶, 삶 안의 죽음 - 『기형도 전집』에 부쳐」, 『문학과사회』 여름호, 1999.
- 정남영, 「김영현 소설은 남한 문예운동의 미래인가, 과거인가」, 『노동해방문학』, 1990.6.
- 황종연·진정석·김동식·이광호, 「좌담: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